WEEKLY IBK 경제브리프
(510호) 2017-09-12
IBK경제연구소

독일 창업의 5대 특징

※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창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 유럽 경제강국인 독일 창업의 특징을 독일재건은행(KfW은행)그룹의 연구에 근거하여 조사

□ (①양적 감소) '14년 대비 '15년 독일 창업수는 감소(91.5만개 → 76.3만개)

○ 최근 창업 감소는 독일의 좋은 경기와 낮은 실업률에 기인

※ 독일 실업률(단위 : %) : 7.8('08) → 8.1('09) → 7.7('10) → 7.1('11) → 6.8('12) →6.9('13) → 6.7('14) → 6.4('15)

< 독일 창업수 >

구분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
본업 창업	331	397	401	381	317	306	393	284
부업 창업	466	475	540	454	460	562	522	479
합계	797	872	941	835	777	868	915	763

자료 : KfW-Gruendungsmonitor, 단위 : 천개

주 : 부업 창업은 창업자들이 시간제 근무자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, 본업 창업은 창업자들이 전일근무자인 경우

※ (한국 창업) '14년 대비 '15년 신설법인수가 증가(8.4만개('14)→9.3만개('15))하는 등 한국 창업의 수는 증가추세

□ (②청년 창업) '15년 34세 이하 청년층의 비중은 전체 창업의 약 50% 차지

○ 청년층의 창업 비중이 45세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 비중(약 30%)보다 높음

< 독일 창업자 연령 >

구분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
18~24세	15	14	17	20	14	18	12	16
25~34세	30	24	26	28	29	31	31	34
35~44세	29	29	29	26	26	26	24	20
45~54세	17	21	17	19	20	17	23	22
55~64세	9	12	11	7	11	10	9	9

자료 : KfW-Gruendungsmonitor 2016, 단위 : %

※ (한국 창업)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 비중이 압도적(50대(35%), 40대(33%), 60대(18%), 30대(13%), 20대 이하(1%))

□ (③기회형 창업) '15년 전체 창업 중 기회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%

○ 혁신적 창업(하이테크, 소프트웨어, 첨단기술 등 R&D 기술부문의 창업)의 비중이 '14년 10%(92,000개)에서 '15년 12%(95,000개)로 증가(KfW, '16년)

< 독일 창업의 동기 >

구분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
기회형	30	39	38	35	47	53	48	49
생계형	36	34	35	35	30	30	32	27
기타	34	27	28	30	23	17	20	24

자료 : KfW-Gruendungsmonitor, 단위 : %

주 : 기타(자기실현, 가족·개인적인 이유 등)

※ (한국 창업)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더 높은 편(생계형 창업 비중 63%, 혁신형 창업 비중 21%, 현대경제연구원)

□ (④직업교육 졸업자 창업) '15년 직업교육 졸업자의 창업 비중이 47%로 대졸 이상 고학력자(20%)보다 높은 편

○ 체계적으로 확립된 독일 직업교육시스템 하에서 전문성을 갖춘 숙련인력들이 많이 양성되는 것에 기인(독일 대학 진학률은 약 40%)

※ (한국 창업) 고졸자(38%)와 대졸자(34%)가 주로 창업(중졸(11.8%), 전문대졸(11.6%)), 대학원졸(석사, 3.7%), 대학원졸(박사, 0.9%)

□ (⑤창업 자금) '15년 내부자금만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전체 창업의 65% 차지(외부자금만 조달 : 10%, 내·외부자금 모두 조달 : 24%)

○ 창업 시 외부자금조달 원천은 친척·친구로부터 융자(39%), 은행대출(25%), 정책자금 대출(25%), 연방고용사무소 보조금(15%) 등의 순

- 독일 창업금융 지원은 독일재건은행(KfW), 주은행, 보증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, 그중 독일재건은행이 가장 큰 규모로 지원(예: ERP-창업자본)

※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('15년) 연구결과에 따르면, 창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※ (한국 창업) 창업자금으로 주로 내부자금(95%)이 활용되며, 외부자금조달 원천은 은행·비은행 대출(29%), 개인 간 차용(16%), 정부융자 및 보증(5%),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(5%), 엔젤 및 벤처캐피탈 투자(1%) 순

□ (시사점) 유럽경제 강국인 독일의 창업은 양적으로는 감소하나, 기회형 창업 및 청년 창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질적으로 향상되는 추세

○ 이는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, 생계형 창업, 40대 이상 중장년층 창업, 고졸 창업이 지배적인 한국 창업의 주요 특징과 대조적인 양상

(작성자 : 중소기업팀 차장 권준화 paderkwon@ibk.co.kr / ☎02-729-6597)